

대학교 경호학과 및 경호 관련 교육단체들의 발전방안 연구

김남중*

요 약

전국 대학교에서 경호 관련학과가 설립되어 다양한 학과 명칭과 교육과목을 설정하여 학생들을 경호·경비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각 대학교 경호 관련학과의 교육은 민간경호 관련업무와 현실성 및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육과정 설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졸업 후 경호 관련 직종에 취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로 도출되고 있으며, 취업을 하더라도 뛰어난 적응력을 발휘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선방향으로는 각 대학교 경호 관련 학과에서 경쟁력 있는 민간경호·경비 관련업체들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현장중심의 업무교육을 강화하고, 현실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며, 관련 업종 취업률을 높여야한다. 또한 경호 관련학과의 교육과정 확립을 통해 민간 경호·경비 발전은 물론 사회의 전문 직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면,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위상은 높아지고, 이직률은 낮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민간경호 관련 교육단체들은 공신력 제고와 노력의 부족, 시스템 결여와 시스템 적 사고의 부족, 경비업체의 연계 및 협조 부족, 자격의 편중, 직업교육 훈련 기관과 연계부족의 문제 등이 도출되었다. 개선방향으로는 국가인정을 받도록 꾸준한 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격 취득자에게 취업으로 연계시키며, 자격 종류를 다양화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자격 검정 과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직업훈련기관의 설치 방안을 제시하였고, 경비업에 민간조사업무를 추가하여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university and security organizations's developmental research

Kim Nam Joong*

ABSTRACT

The department has established a variety of studies and training courses and has tried to nurture talented people for security companies. However, the research is marginal, and each university department of security guard education, curriculum falling due after graduating students. Moreover, even if students are occupied an employment exceptional adaptability has occurred. Therefore, each university of private security department will need to collaborate with competitive private security company for reinforce and employment rate in center of experienced field. Then, the security's society will be placed in professional occupation, elevate the phase and will decrease the turnover rate. Qualification system of private security have been indicated in distrust, moreover the system have to be adjusted because not enough effort, control system, cooperation system with training center, one-sided emphasis and private inquiry by adding in private security law.

Key words : security studies, security related studies, curriculum, Private Security, Security

1. 서론

우리나라도 매년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형태는 날로 기동화·지능화·흉포화 양상을 보이는 등 국민들이 느끼는 치안 불안은 감소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5대 범죄는 585,637여건이나 발생하였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화·국제화 추세에 따라 과거 일부 국가나 사회에 국한되어 발생했던 조직범죄도 국제적인 연계망을 통해 세계 각국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 전 세계적으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제범죄 조직의 국내 침투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2]. 최근 범죄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범죄는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로 증가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경찰의 역할과 경찰기능을 확대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경찰인력¹⁾ 및 예산의 부족, 낙후된 경찰장비, 낮은 보수체계, 과중한 근무시간과 업무량, 각종 조장행정기능에 대한 협조업무 등이 경찰방법 활동의 대내외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15]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범죄예방활동이나 치안서비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켜주는 안전한 보호막이 못 되고 있다.[15]

정부는 치안수요에 비례하여 경찰력을 증원하는 방법을 취하려 하였으나, 여건상 한계가 있어 부족한 치안력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²⁾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민간경비 산업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고, 1976년 12월 31일 ‘용역경비업법’을 제정하게 된다.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이래 1995년 경비지도사 제도 신설과 신변보호 업무의 도입, 1999년 ‘경비업법’으로 법령 개정, 2001년 경비업 업무영역의 확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12] 최근 경제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국제교류와 APEC 국제회담 등 국제적 행사가 많아져 단순한 인력 경호산업 중심에서 시스템 경비와 요인 경호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10] 이러한 계기를 통해 민간경비는 민생치안의 대안으로서 미래 산업의 하나로 각광받게 되었고, 정계 및 유명인사, 연예인, 부유층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대중화되어 양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어,[7] 현재까지³⁾ 경비회사는 3,651개와 그 산하에서 146,286명의 경비원 종사하고 있다.

‘경호’는 그 동안 체육학의 한 분야로서 학문적 발전을 시도하며 발전해 왔다. 그 구체적인 시도로 ‘경호학과’의 개설은 분명히 학문적인 연구에 대한 요구에 의한 것이었고, 1996년 대학의 정식학과로 탄생되었으며, 그것은 경호 그 자체의 학문적인 정체성을 인정한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12] 1990년 초반만 하더라도 민간분야의 경호·경비업무에 대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은 주로 사설기관에서 담당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대학의 전문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4]

경호 관련학과 설치는 시민의 안전의식 증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고, 사회치안활동에 대한 경찰력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서 전문 인력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1] 1995년을 기점으로 하여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39개 대학(2년제와 4년제 포함)에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경비업의 전문화와 경비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신설된 경호 관련학과는 타 학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기학과 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9] 학생 모집단위가 과도하게 많은 반면 학생 개인에 대한 진로지도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며, 경호학이 일부 무도관련 과목을 제외하고는 체육과 연관되는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호학이 체육의 한 분야로 인식되어 교과과정에 체육이나 무도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8]

또한 경호 관련학과를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경호 관련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하나도 얻지 못한다. 이는 태권도 학과나 유도학과를 졸업했을 때 혹은 체육

1)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찰인력은 2001년의 경우 90,819명으로 1인당 담당 국민의 인구는 526명이며, 2011년의 경우 101,239명으로 1인당 담당 국민의 인구는 501명으로 나타났다.

2) 미국(노동청, 2000)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1세기 유망 전문 직종 상위 20위중 경호원을 18위로 발표했다.

3) 2011년 12월 31일 경찰청 자료

관련학과를 졸업했을 때와 비교할 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된다. 뿐만 아니라 경호 관련학과만의 독자적인 정체성 확보도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16] 그리고 졸업 후 관련업종에 취업하더라도 타과 졸업생 및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으며, 경호 관련 민간자격증을 취득하여도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있다. 또한 국가자격증 시험인 경비지도사 시험은 이론과목이 대부분이어서 자격증 취득 후 취업을 하더라도 각각의 경비업무를 수행하거나 경비원들을 지도·교육·감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다양한 업무를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비업의 전문성과 민간경비원의 전문화를 통한 자질 향상이 필요하며, 범죄 예방을 주기능으로 하는 민간경비의 고유 영역을 확보하고 질·양적 향상을 위해 대학교 경호학과 및 경호 관련 교육 단체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 저해요인들을 분석한 후 개선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경호에 관련된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학생들 및 일반인들에게 참고 자료가 되고, 대학교 경호학과 및 경호 교육 단체들이 더욱 발전하며, 민간경비 산업이 발전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로서 민간경호·경비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위논문, 학술지 연구자료, 단행본 등을 사료로 사용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각종 기관들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민간경비 관련 보도 내용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2. 대학교 경호학과 실태

2.1 대학교 경호학과 현황

한국의 민간경비는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이래 약 35년 동안 급속한 양적 성장과 질적 향상을 거듭해 왔다. 최근 기계경비산업의 전문화와 시장규모의 확대 그리고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를 위한 특수경비원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충원하기 위해 인력수급이 확대되었다. 또한 경호·경비업이 21세기 유망 직종⁴⁾

으로 분류되면서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각 교육기관 및 학회, 단체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국내 최초로 한국체육대학교가 1995년에 안전관리학과와 명칭으로 경호 관련학과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다음해인 1996년에는 용인대학교에서 경호학과가 설립되어 ‘보디가드는 경호학’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며, 인기학과로 부상하게 된다.[18] 이때 입시경쟁률이 약 7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여 유망 학과로서 발전 가능성을 직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각 대학에서 경호 관련학과를 개설되는 이유는 사회범죄의 증가, 민간경호·경비 수요급증, 민간경비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경호·경비직종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표 1>은 현재 국내의 4년제 대학교 중 경호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을 조사한 자료이며, 2년제 대학은 제외하였다.

<표 1>을 살펴보면 대학의 특성에 따라 경호·경비를 강조하는 대학이 있고, 경호·비서를 강조하는 대학이 있으며, 경호와 무도를 동일한 범주로 간주하여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대학도 있음을 알 수 있다.[5]

특히 대부분의 경호 관련학과들은 체육관련 대학 및 학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 경호·경비관련 전공자들이 국내에 극한되어 있고, 무기를 소지할 수 없는 한국 실정에 맞는 무도인 및 체육인들이 경호 관련학과와 유사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교육과정 역시 무도와 체육과정이 주를 이루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1995년도부터 경호 관련학과들이 신설되어 60여개

증가 추세”

경호원이 되기 위해선 보통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 경호산업의 발전으로 경호학과나 경호무도학과 등 대학에 경호 관련 학과가 많이 개설되면서 경호업체에서는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다. 사설학원이나 관련 협회에서도 경호원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이러한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기본적으로 태권도나 유도, 검도, 합기도 등의 무도 능력이 매우 뛰어나야 하며 무도단증이 있으면 유리하다. 운전면허증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이 있다. 이 외에도 관련 협회에서 인증하는 사설경호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직업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호원의 평균임금은 연 2595만원이다.

4) 한국경제신문, 2009년 3월 9일자.

[불황기 유망직종] “경호원 .. 사회불안 커지면서 채용의뢰

의 대학이 있었으나, 현재 신입생 감소 등의 문제로 줄어들어 39개 대학(2년제와 4년제 포함)에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25]

다는 것을 의미 할뿐만 아니라, 전문성제고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24]

<표 2> 전국 4년제 대학교 교육과정 영역 분포

<표 1> 전국 4년제 대학교 경호 관련학과 개설년도

개설 년도	대학교	학과명	소속
1995	한국체육대학교*	안전관리학과	스포츠건강 복지학부
1996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무도대학
	한서대학교	경호비서학과	이학부
1997	한중대학교	경호비서학전공	경호무술학부
1998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	체육대학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경찰경호대학
1999	초당대학교	경호비서학과	예체능계열
2000	대불대학교	경호·무도학과	예체능계열
2001	동서대학교	경호전공	레포츠과학부
	경운대학교	경호학과	경호학부
2003	대전대학교	경호무도지도학과	보건스포츠과학대학
	호원대학교	무도경호학과	스포츠계열
	경동대학교	경호학과	경호학과
2004	경남대학교	경호비서학부	법정대학
	호서대학교	경호학과	예체능대학
2006	대구예술대학교	경호전공	체육계열
2007	남부대학교	무도경호과	예체능계열
	신문대학교	경찰경호전공	무도경찰경호학부
	우석대학교	경호비서학과	체육 과학대학
2009	호남대학교	태권도경호학과	체육과학부

*는 석사 및 박사과정 대학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교육 과정 대학교	일반 체육 영역	무도 영역	경호 관련 영역	기계 경비 영역	법률 관련 영역	계
경기도 K 대학교 경호 안전학과	6과정 (18%)	7과정 (21%)	16과정 (49%)	2과정 (6%)	2과정 (6%)	33과정 (100%)
경기도 Y 대학교 경호학과	1과정 (3%)	11과정 (36%)	16과정 (52%)	2과정 (6%)	1과정 (3%)	31과정 (100%)
충남 J대학교 경찰 경호학과	-	4과정 (18%)	11과정 (50%)	5과정 (23%)	2과정 (9%)	22과정 (100%)
충남 H대학교 경호 비서학과	16과정 (25%)	12과정 (19%)	32과정 (50%)	2과정 (3%)	2과정 (3%)	64과정 (100%)
경남 K대학교 경호 비서학부	1과정 (3%)	8과정 (20%)	25과정 (64%)	3과정 (8%)	2과정 (5%)	39과정 (100%)
경북 K대학교 경호학부	22과정 (50%)	10과정 (23%)	9과정 (21%)	1과정 (2%)	2과정 (4%)	44과정 (100%)

지금까지 경호 관련학과의 교육과정과 관련한 많은 연구발표가 있었지만 대부분 문제점 제기에 그치거나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 것들이 많았다. 이는 학교 교육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 좋은 의견과 또는 생각과 달리 현실적인 개선효과를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26]

2.2 대학교 경호학과 교육과정 현황

경호 관련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경호·경비업체나 기업의 안전부서에 근무하는 것이 대체적인 현상이다. 그들이 현장에서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교과목의 편제는 매우 중대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표 2>의 대학교 교육 영역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중 무도 및 체육관련 과목이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70%이상인 대학도 있다. 전공이론 및 실무관련과목인 기계경비분야 관련과목이 아주 낮게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화 및 정보화 추세에 따라 외국어 관련 과목이나 이와 관련된 전공 과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교육 과정이 대학교마다 천편일률적이며, 2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의 교과과정의 차이점도 발견하기 어렵다. 이것은 학생들이 졸업 후, 날로 진화하는 범죄와의 싸움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

2000년대 초반까지 경호 관련학의 비중이 각 학과마다 50%수준도 안 될 만큼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실기 위주의 교육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서양의 무인경비, 시설·기계경비가 급격하게 상승추이를 보이면서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는 현상으로 변해가는 시점에 다 달았을 때, 경호 관련 학과도 교육과정을 조정해야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또한 국가 자격제도인 경비지도사 자격검정이 이론중심으로 구성되어있어 더욱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학교는 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 경호 관련 학과의 사회적 사명 또한 우리나라 경호·경비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앞서가는 산업분야의 발전 속도에 대학교도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 분야는 발전가능

성이 미약하게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3. 민간경호 관련 교육단체 현황

3.1 대한경호협회

대한경호협회는 1991년 경호무술의 보급과 민간경호원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1996년 1월에는 대한경호협회의 부설 교육기관인 한국경호훈련원을 개원하여 12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경호무술 경호이론 및 실무교육, 경호사격, 대테러학 등의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민간 경호원을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자격제도로는 경호원자격(3급, 2급, 1급)과 경호지도자자격(2급, 1급)이 있으며, 각각 자격 급수에 따라 응시자격과 자격검정기준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13]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협회가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대학교 관련학과 등에서 단체로 위탁 교육과 자격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3.2 국제경호협회

국제경호협회는 1992년 2월에 협회를 발족하였고, 1994년 국제경호아카데미를 개설하여 경호전문가 교육과정을 실시하게 된다. 1995년부터 경호원 1급, 2급 자격평가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다음해 7월 경호원 3급 자격평가 제도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이후 2001년에는 경호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였으며, 2007년 8월 경호사 자격제도를 개정(1급, 2급, 3급 등급 도입 시행)하여 시행하게 된다. 교육과목은 경호학, 테러학, 범죄학, 경호의전, 경호보디랭귀지, 경호실무, 경호협상, 경호경비, 경호장비 및 폭발물, 구급법, 경호호신술, 법률상식, 경호관계법이며, 교육 진행은 이론, 실기, 실습, 영상교육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6]

연수기간은 3개월(240시간)이며, 1일 평균 4시간(월-금요일) 교육하여 경호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 교육비(270만원), 협회가임비(5만원), 협회연회비(6만원), 자격응시료(10만원), 자격발급료(20만원), 교재

(이론, 실기) 및 피복비(39만원) 등 총 350만원이 소요된다.[19] 국제경호협회의 경호사 및 경호원 자격은 2005년 현재 <표 3>와 같이 10,432명이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3> 국제경호협회 경호사·경호원 자격취득현황

구 분	경 호 사	경 호 원			비 고
		1급	2급	3급	
1994		1	2,306		1, 2급 제도 시행
1995		16	3,750		
1996		9	460		
1997			472		
1998			360		
1999			4	633	3급제도시행
2000				521	
2001	1			750	경호사제도신설
2002				274	
2003	37			346	
2004	45			296	수시시행
2005	12			124	전국통합시험실시
합계(명)	83			2,820	
총합계(명)				10,432	

자료 : 국제경호협회 2005년 09월

3.3 한국특수행정학회

한국특수행정학회는 2000년 5월 한국연구재단에 등록하고 한국특수행정학회 교육원을 신설하였으며, 2001년 6월 자격기본법 법률에 의거 사설정보관리사(PIA : 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민간자격제도를 시행하게 된다[19]. 사설정보관리사(PIA)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보, 자료 수집, 사실 확인 등 탐정·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자격취득자를 말한다.[27] 시험방법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동시에 진행되고, 1차 시험과목으로는 PIA민간조사학개론, 범죄학(범죄심리), 법학개론이며, 2차 시험과목으로는 PIA민간조사관계법, PIA탐정 및 민간조사실무 과목이다.

<표 4>와 같이 대한민간조사협회에 가입되어있는 회원들은 현재까지(2010년 12월) 총 3,699명이며, 관련 단체인 대한민간조사연합회 및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에서 관련 연구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특수행정학회는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활동하고 있고, <표 5>와 같이 사설정보

5) 2008년 7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해 경호자격제도인 경호원자격증 1급, 2급, 3급과 경호사자격증 1급, 2급, 3급을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하였다.

관리사 자격시험을 합격 후 다양하게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

<표 4> 대한민간조사협회 전체회원 지역별 현황

회원 지역	특별 회원	일반 회원	준회원	정회원	계
서울	2	966	12	239	1,219
경기	4	705	11	167	887
인천		189	2	42	233
대구		132	2	42	233
대전		100		10	110
광주		85	4	14	103
울산		35		8	43
부산		197	3	30	230
강원		76		28	104
충남		72		28	104
충북		75	1	17	93
경남		112	1	21	134
경북		103	1	7	111
전남		63		6	69
전북		66		13	79
제주		24		2	26
계	6	3,000	37	656	3,699

자료 : 한국직능교육재단 2010년 12월

<표 5> 사설정보관리사 수료 후 취업활동 현황

구분	교육생(회원) 수
경호, 경비, 보안업체	259
NGO단체 간사	32
일반 민간조사관 업체	133
손해사정인	23
기업체 기획법무팀	47
PI 창업	116
민간조사관 프리랜서	123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장	38
경비지도사 업무	28
보험회사 조사팀	89
신용정보회사 채권팀	174
기타	249
총 인원	1,311

자료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2011년 10월

3.4 한국경비협회

한국경비협회는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비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회원의 품위보전과 권익을 위해 경찰청에서 허가 받은 단체이지만, 2006년부터 경호교육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경비협회가 시행하는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은 2

006년 4개년 사업으로 추진되어 시작하였으며, 1차년도(2006년)는 우선 신변보호사 업무를 대학(교)에 국한하여 검정 실시하고 2·3차년도(2007~8년)는 대학 및 경비협회 산하인 지회로 확대, 5개 업종을 전부 검정함으로써 기반을 조성하여 4차년도(2009년)는 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공인 신청하여 경찰청의 공인인정을 받아 명실상부한 민간공인자격으로 정착시킬 계획을 갖고 추진되어 왔다.[22]

<표 6>는 2006년도에 최초 시작하여 현재까지(2010년도) 4,192명을 합격하였으며, 합격률은 85.23%이다.

<표 6> 신변보호사 응시 및 합격률

구분	연도	연도					합계
		2006 1차	2007 2차	2008 3차	2009 4차	2010 5차	
2 급	접수	293	926	1,308	1,166	707	4,400
	응시	286	868	1,209	1,050	622	4,035
	합격	274	835	1,109	634	501	3,353
	합격률	95.8	96.2	91.7	60.38	80.55	83.10
3 급	접수	528	294	103	.	.	925
	응시	519	265	99	.	.	883
	합격	789	255	95	.	.	839
	합격률	94.2	96.2	96.0	.	.	95
합 계	접수	821	1,220	1,411	1,166	707	5,325
	응시	805	1,308	1,308	1,050	622	4,918
	합격	763	1,204	1,204	634	501	4,192
	합격률	94.5	96.2	92.0	60.4	80.55	85.23

자료 : 안황권 (2011).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필요성과 과제.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정보·보안 논문지, 11, 2, 30.

2009년 직업능력개발원에 공인을 신청한 결과 전국 경찰 및 경호관련 대학생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한 것이 지적되어 2009년 제4차 시험부터는 응시대상자를 일반국민(만18세 이상,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으로 확대하였으며, 2010년에도 동일하게 시행되었다.[20] 시험방식은 1차와 2차 동시에 진행이 되고, 1차 시험과목은 민간경비론, 경비업법, 경호학이며, 2차 시험과목은 범인대응술, 체포·연행술이다.

3.5 그 외 민간경호 관련 교육단체

<표 7> 민간경호 관련 교육 단체 교육과목 및 합격기준

교육 단체명 (위치)	자격명	내용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서울)	신변보호사 (1급,2급,3급)	- 검정과목 : 경호학, 형법, 경비업법, 경호경비실무(1급, 2급, 3급 동일) - 합격기준(1급) : 1차 필기-300점 중 240점이상, 2차 과제물-실용성, 기술성(2급), (3급) : 1급과 동일, 2차 필기-100점 중 60점이상
(사)국제경호무술연맹 (서울)	경호지도사 (등급없음)	- 검정과목 : 경호학, 구급법, 경호무술기술체계, 경호무술의 철학, 근력, 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심폐지구력, 경호무술, 경호기술 -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70점이상(필기, 실기, 체력)
(사)세계경호무술협회 (경기도)	경호원자격증 (1급,2급,3급)	- 검정과목 : 경호학개론, 기본응급처치요령, 경비업법, 경호업법, 경호실무, 신변보호, 호송업무, 경호무술기술동작, 경호특기술, 경호무기술, CPR실습(2급과 3급은 일부과목 제외) - 합격기준 : 85점이상/100점만점(2급 75점이상, 3급 70점이상)
(사)한국문화교육협회 (서울)	경호지도사 (전문가과정, 1급, 2급)	- 검정과목 : 법학개론, 경호학, 경호훈련 및 지도방법, 경호실무 활용능력, 응급처치, 경호술기, 기본체력(전문가과정, 1급, 2급 동일) - 합격기준 : 80점이상/100점만점(1급 70점이상, 2급 60점이상)
(주)거무경호협회 (경상도)	경호요원지도사 (1급,2급)	- 검정과목 : 법학개론, 경호학, 경호훈련 및 지도방법, 경호실무활용능력, 응급처치, 경호술기, 기본체력(1급, 2급 동일) - 합격기준 : 1급(필기 250점, 실기 100점, 총점 350점 중 320점 이상) 2급(필기 150점, 실기 100점, 총점 250점 중 220점 이상)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서울)	특수경호사	- 검정과목 : 민간경비론, 경비업법 및 경호관계법, 경호학개론, 범죄심리학, 경호실무 - 합격기준 : 60점이상/100점만점(과락 40점 없이 평균 60점 이상 전원합격)
	특수경호원	- 검정과목 : 경호의전비서학, 장비 및 안전관리, 경비업법, 경호학, 경호실무 - 합격기준 : 60점이상/100점만점
한국민간경비교육원 (서울)	경호지도사	- 검정과목 : 경호학, 경호경비법, 경호실무, 테러대처론 - 합격기준 : 60점이상/100점만점
(주)한국인성교육개발원 (서울)	학교보안관	- 검정과목 :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처방안, CCTV운용 및 검문검색요령, 장애 및 성차별예방지도, 응급조치요령(심폐소생술), 인터넷 중독 예방조치 - 합격기준 : 60점이상/100점만점(출석20%, 실기30%, 필기50%)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www.pqi.or.kr)

4. 대학교 경호학과와 경호 관련 교육단체들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4.1 대학교 경호 관련전공학과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4.1.1 대학교 경호 관련전공학과의 문제점

국내 대학의 ‘경호학과’ 개설은 시민 개개인의 안전이 사회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3] 시민의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시큐리티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경호 관련 학과는 1995년을 기점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오늘날 경호경비산업은 날이 갈수록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계적인 물리장치에 의존현상이 높아가며, 이에 대한 인력의 투입도 시스템의 관제나 통제에 대한 수요를 유발시키고 있다. 특히 자본력과 기술을 갖춘 선진국의 경비업체와 대기업 경비업체들이 국내시장을 점유하면서 수용인력에 대한 교육수준도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전문인력의 양성기관인 대학교의 교육제도는 아직까지 민간경비 시장수요의 시대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졸업생들의 진로에도 직접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변화에 따른 적절한 교

육과정이 통합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하며,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각 대학교에서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고급인력을 양성해야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에 대한 변화를 주장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학문적 지향성은 다분히 사회과학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육내용은 체육학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학문적 정체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대학별 학과명칭도 경호학과를 시작으로 경호비서학과, 경찰경호학과, 경호안전학과, 경호무도학과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각 대학의 입시홍보 차원의 특성화 방안으로 학과 명칭을 활용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전공의 영역을 의미없이 확대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경호 관련학과가 40여개가 있고 지속적인 증가 추이에 있다. 민간경비 시장의 성장과 함께 관련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학과가 신설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40여개 학과 중 순수 경호 및 경비학을 위한 전문적인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입시생들의 경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며, 대학에서는 학교 경쟁력을 위한 정책으로 부분별한 경호학과를 신설하여 경호 및 경비 학문에 대한 정체성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일부 4년제 대학교 경호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나타나듯이 6개 대학 중 전공(경호관련·기계경비·법률관련)영역이 70%를 넘는 학교가 2개 대학에 불과하다. 또한 순수 기계경비영역은 한개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10%미만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전문요원을 교육하는 교과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경비지도사 자격제도가 실시되면서 자격에 대한 법제화가 실시되고, 이에 따른 경호·경비관련 교육과정도 변화되는 현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경호·경비 산업이 기계경비시스템 위주의 시장성을 고려했을 때, 기계경비영역의 교과과정은 아직도 미비한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해마다 졸업생은 많이 배출되는데 비해 관련

업체의 대학교 졸업자 채용인원은 극히 부분적이며, 졸업생들이 관련업종에 취업하더라도 타과 졸업생 및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어 학생들의 진로에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국가자격증 시험인 경비지도사 시험은 이론과목이 대부분이어서 자격증 취득 후 취업을 하더라도 뛰어난 적응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 실정이며, 각각의 경비업무를 수행하거나 경비원들을 지도·교육·감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장기적으로 민간 경비의 인력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4.1.2 대학교 경호 관련전공학과의 발전방안

첫째, 대학교 경호 관련학과는 별도의 대학 또는 사회과학대학에 그 소속을 둠으로서 전공영역의 고유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학과 명칭은 경호·경비를 기본으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탐정(PIA) 전공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더욱 세분화 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관련 전공에 중점을 둔 이론과 실무 위주의 교과편성이 바람직하며, 특히 현대의 기계경비시스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교과목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공 교수요원은 편중되지 않게 배치해야 할 것이며, 기존의 무도 및 체육영역은 대폭 축소시켜 경호·경비관련 학문에 추가 아닌 보조적인 학문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가 다원화되고 급속한 변화가 사회에서는 대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과의 연계를 강화해야한다. 따라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교육 및 실무중심교육을 강화시킨다면,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와 자격증 취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장 실무교육과 다양한 민간경비업체들의 현장 견학을 통해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군을 선택하게 한다면, 관련업종 취업 후 뛰어난 적응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이직률은 낮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국내 민간경호·경비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술 및 인력을 위해 최대한 많은 업체들과 산학협력을 추진하여 현장실습 및 실무교육, 그리고 회사들의 견학 등을 통해 민간경비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공급에 협조 되어야 하지만, 국내 민간

경비회사들은 대부분 영세업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난립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회사들은 학생들의 향후 진로에 큰 도움이 되질 못하므로 되도록 상시 근로자 200인 이상의 회사로 제한하여 산학협력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자본력이 우수하거나 새로운 경호·경비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회사들과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단체로 제한하여 산학협력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대학교의 여건과 지역 환경에 알맞게 졸업 후 동문, 대학, 기업 등 네트워크의 특성화계획을 구축하여 활성화가 된다면, 타 전공분야에 비해 학과의 홍보 및 취업 증대를 위한 차별화 전략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12]

따라서 대학교에서는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질의 전문 인력을 교육시키고, 배출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국제 민간경비 산업의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의 미래적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경호·경비관련 표준교육과정 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학교, 기관, 학회, 협회 등이 학문적 성과를 이루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4.2 민간경호 관련교육단체들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4.2.1 민간경호 관련교육단체들의 문제점

한국의 민간경호 관련교육단체들의 발전은 1990년 초부터 민간경호전문교육기관인 대한경호협회와 국제경호협회가 비슷한 시기에 경호원 교육을 시작으로 발달하였고, 한국특수행정학회의 탐정(PIA)자격과 한국경비협회의 신변보호사 자격제도가 참여하면서 더욱 민간경호 관련교육단체들의 양상이 다양해져갔다.

1995년 한국체육대학교 안전관리학과와 1996년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신설 이후 전국적으로 대학에서 경호 관련학과 신설로 인해 경호교육 자원들이 경호 관련학과에 입학하게 되고, 경호의 기초지식을 갖춘 경호 관련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경호현장에 투입되면서 민간경호 관련교육단체들의 교육 사업은 부담을 갖게 되었지만, 국가 경호자격증이 없는 현실

정에 민간경호자격증이 절실히 요구되어 일부 경호 관련학과에서는 민간경호 관련교육단체들에게 교육을 위탁하여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2006년~2010년 한국경비협회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시험 시행에 응시하여 합격한 대학생들이 전국적으로 <표 6>와 같이 4000명이 넘었으며, 현재도 한국경비협회 신변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대학 관련학과 학생들이 점차 늘었지만, 한국경비협회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시험 시행으로 민간경호 관련교육단체들은 더욱 부담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다.

현재 많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있지만, 민간경호 관련교육단체에 교육을 준비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생 그리고 일반인들은 비슷한 민간경호교육단체명칭 및 민간경호자격증 명칭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열악한 교육시설, 검증되지 않은 강사진들과 질적으로 떨어지는 교육내용 등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민간경호교육단체 및 민간경호자격증의 신뢰도가 상실되고 있다. 또한 민간경호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민간경호교육단체들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통해서만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않고 경호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에는 제한적이며, 자격증을 취득해도 타 민간경호교육단체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거나 관련업종에 취업을 할 때에도 크게 도움이 되질 않는다.

4.2.2 민간경호 관련교육단체들의 발전방안

첫째, 민간경호 자격제도 경우는 국가자격이 아니므로 산업계와 사회의 통용성 등 자격의 공신력을 민간관리자 스스로가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자격관리자들은 이러한 노력은 게을리하는 반면에 교육비용 및 자격증 수수료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표 7>과 같이 민간경호 교육단체들의 전체적인 교육과목들은 민간경비 관련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이론 및 실기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학교 관련학과 학생들이 2년 또는 4년 동안 대부분 배우는 과목들을 짧은 기간 동안 습득하여 검정하기 때문에 수준 높은 기대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각각의 교육단체들의 교육과목, 합격기준, 자격명을 살펴

보면 너무나도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교육시설과 검증된 강사진, 쾌적한 교육환경, 수준 높은 교육내용을 토대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교육과목과 합격기준을 매뉴얼화하고 자격명을 일원화해야 한다. 매뉴얼화 방안 중 교육과목으로는 경호현장에서 필요한 제반 이론 및 실무 과목인 경호학, 경비법령, 민간경비론, 경호의전비서학, 경호경비기획론, 기계경비론, 기계경비설계, 경호현장운용론, 경호실무, 응급처치, 경호장비운용, 경호무술, 현장실습 등의 과목이며, 위와 같은 과목을 이론과 실무를 병합하여 교육하되, 교육기간이 짧은 관계로 실무 교육을 더욱 비중 있게 두어야 한다. 합격기준은 과목별로 과락 40점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전원 합격으로 제안한다. 그리고 자격명은 경호원 또는 경호사로, 급수제도는 1급, 2급, 3급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현행 민간경비 관련 자격증은 <표 7>과 같이 대부분 신변보호(경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탐정(PIA), 학교보안관 제도 이외에 자격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전문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신변보호사(경호지도사 등)외에 신설할 수 있는 것은 시설경비사, 호송경비사, 기계경비사 등이다.

둘째, <표 7>과 같이 민간경비 관련 자격 중에서도 (사)한국경비협회가 관리·운영하는 ‘신변보호사’ 자격제도가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높다. 그것은 자격관리자인 (사)한국경비협회가 법정단체로서 2,000개가 넘는 회원사를 가지고 있으며, <표 6>과 같이 4,000명이 넘는 자격 취득자들이 있어 민간경비 노동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한국경비협회가 개최한 2006년 제1회 신변보호사 제도는 협회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구성원들의 시스템적인 사고가 부족하여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가져왔지만, (사)한국경비협회는 기본적인 권위와 신뢰가 바탕에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성원들이 소정의 직무에 충실한다면 민간경비제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한국경비협회는 민간경비산업 현장에서 인정받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자격취득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취업으로 최대한 연계시키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민간경비 자격취득자에 대한 처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격증 소지자에게 취

업 또는 승진 시 수당지급 및 가산점 부여 등을 토대로 ‘경비업법령’을 개정하여 자격소지자만 경비업종에 근무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경비의 한 분야에 속하는 민간조사(탐정)는 선진국에서 경찰 및 민간경비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왔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가입국에서는 민간조사와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여 민간조사제도를 발전시켜 왔다.[21] 1997년 이후 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이 개방된 것을 계기로 외국의 관련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탐정소라는 명칭만 사용하지 않을 뿐 컨설팅이란 명목으로 진출하여 현재까지 약34여개⁶⁾ 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개인의 관련된 기존의 조사업무 이외에 기업관련조사업무, 금융관련조사업무, 보험관련조사업무, 의료관련조사업무, 사이버관련조사업무, 교통사고관련조사업무, 지적재산권침해조사업무, 실종자관련조사업무 등의 업무를 확대하여 수행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특수행정학회’가 자격기본법에 의해 민간조사원(사설정보관리사 -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설립하여 활동하였고, 현재는 상호를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으로 변경 후 활동하고 있다. 또한 <표 4>와 같이 약 4,000명의 자격 취득자들 배출하였고, 자격취득자들이 <표 5>와 같이 1,300명이 넘게 관련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1년 11월 21일 국회 이인기 의원(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민간조사제도 도입관련 법안인 경비업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으로써 민간조사 분야의 발전을 예상할 수 있다..

민간조사업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민간조사요원들의 75%이상이 경찰 및 군과 경비회사 등이며, 총 민간조사요원 중 25%정도가 보디가드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개정입법의 용이성 측면을 보았을 때 민간조사업무가 경비업에 포함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23] 따라서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여 경비업무에 추가되어 시행된다면, 민간경비산업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사료된다.

6)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2010년 자료

5. 결 론

1990년대 초부터 민간경호 교육단체가 설립되어 경호원 교육을 통해 경호의 제반 지식을 갖춘 민간경호원이 배출되기 시작하였고, 경호에 관련된 다양한 민간 자격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5년 한국체육대학교 경호안전학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경호 관련학과들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학과 명칭과 교육과목을 설정하여 학생들을 경호·경비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학과명칭 및 소속, 교육과정, 학생들의 취업률제고 등으로 함축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먼저 대학교 경호 관련학과는 별도의 대학 또는 사회과학대학에 그 소속을 둠으로서 전공영역의 고유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학과 명칭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탐정 등으로 세분화 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관련 전공에 중점을 둔 이론과 실무 위주의 교과편성이 바람직하며, 특히 현대의 기계경비시스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교과목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공 교수요원은 편중되지 않게 배치해야 할 것이며, 기존의 무도 및 체육영역은 대폭 축소시켜 경호·경비관련 학문에 추가 아닌 보조적인 학문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경호·경비관련 표준교육과정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학교, 기관, 학회, 협회 등이 학문적 성과를 이루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민간경호 관련 교육단체들은 공신력 제고와 노력의 부족, 시스템 결여와 시스템적 사고의 부족, 경비업체의 연계 및 협조 부족, 자격의 편중, 직업교육 훈련 기관과 연계부족의 문제 등이 도출되었다. 개선방향으로는 국가인정을 받도록 꾸준한 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격 취득자에게 취업으로 연계시키며, 자격 종류를 다양화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자격 검정 과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직업훈련기관의 설치 방안을 제시하였고, 경비업에 민간조사업무를 추가하여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1] 강민완, 김선아·김동현, “대학 경호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제10호, p.32, 2010.
- [2] 경찰청, “경찰백서”, p.298, 2008.
- [3] 공배완, “국내 대학 경호비서학과 교육과정 특성에 관한 연구-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 제13호, p.2, 2007.
- [4] 공배완, “민간경호·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교육 및 인증제도의 필요성 제고”, 한국경호경비학회, 제9호, p.2, 2005.
- [5] 공배완, “경호학문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논의”, 경찰경호학과 1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p.45. 2008.
- [6] 국제경호협회, www.ibga.co.kr.
- [7] 김남중,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스포츠티서치, 제22권, 제4호, p.2, 2011.
- [8] 김상진, 김종걸, “경호관련학과 대학생의 전공만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티서치, 제18권, 제5호, 통권104호, p.54, 2007.
- [9] 김영인, “한국 경비업발전 전망에 따른 경호관련학과 교육과정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제5호, p.90, 2002.
- [10] 김창호, 정정석·이영오, “경호관련학과 대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제11호, p.22, 2006.
- [11] 김태민, 강영길, “한국 경비원 관리자제도의 발전방안”, 한국치안행정학회, 제6권, 제11호, p.182, 2009.
- [12] 김태일, 지지환, “경호학과 교육과정을 통한 학문적 개선방안”, 한국스포츠티서치, 제18권, 제3호, 통권102호, pp.32-36, 2007.
- [13] 대한경호협회, www.bodyguard.sc.kr.
- [14] 박동균, 이민형, “한국 민간경비 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 제17호, p.13, 2011.
- [15] 박준석, “민간경호·경비·보안관련 전문자격제도의 도입방안 모색”, 한국민간경비학회, 제9호, p.67, 2007.
- [16] 박준석, “한국 대학의 경호관련학과 이론분야 교

- 육과정의 학문적 정립”, 한국경호경비학회, 제5호, p.159, 2002.
- [17] 서상렬, 박준석, “한국 민간경비 인적자원 확보관리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제16호, p.82, 2008.
- [18] 서진석, 김정환, “한국경비산업발전사Ⅱ”, 서울 : 백산출판사, pp.418-419, 2009.
- [19] 안항권, “신경호경비업법론”, 서울 : 백산출판사, p.177, 2006.
- [20] 안항권,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필요성과 과제”.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정보·보안 논문지, 제11권, 제2호, pp.29-30, 2011.
- [21] 이상원, “민간조사(탐정)제도의 도입방향”, 한국경호경비학회, 제17호, p.236, 2007.
- [22] 이상철, 안성조, “한국 시큐리티자격제도의 실태 및 발전방안 -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 제15호, pp.248, 2008.
- [23] 임명순, “한국민간경비산업의 현황과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 제11호, p.118, 2008.
- [24] 장기봉, “경호관련 교과과정에 관한 소고”, 경찰경호학과 1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p.67, 2008.
- [25] 장예진, “2년제 경호관련학과의 교육과정 현황 및 재구성 - 전문교육 및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 제25호, p.165, 2010.
- [26] 정태황, “경호관련 학과의 특성과 교육과정”, 경찰경호학과 1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p.85, 2008.
- [27] 한국특수교육직능재단, www.kspia.kr.

[저 자 소 개]



김 남 중 (Nam-joong Kim)

2003년 2월 전주대학교 학사
2006년 2월 단국대학교 석사
2010년 2월 전주대학교 박사

email : jamsaco@hanmail.net